전문가 코칭

기업의 성과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삼일PwC(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 서비스), 박재흠 이사

질문1) 지속가능경영, CSR 보고서 등 기업의 성과 정보 공개에 대한 글로벌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비재무정보의 공시 의무도 법제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EU지역 내 일정 규모(종 업원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 금융기관 등)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따른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공시를 의무화 하는 지침(Directive)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침 채택 후 회원국이 국내법화 하는데 2년이 소 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회원국 내 대상 기업들은 2017년부터 사업보고서상 비재무정보를 포함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2) 지속가능경영, CSR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내 정책 동향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에 발 맞추어 비재무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미 2011년 제정된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제도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고액 경영진의 보수 공개 등도 비재무정보의 공개제도 확대라는 큰 흐름의 초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바로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의 질적인 측면과 보고범위의 이슈입니다. 기업이 재무성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열사까지 범위를 넓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듯이 비재무정보도 데이터관리가 선행됨은 물론 해외사업장과 자회사까지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취약부문은 개도국에 위치한 해외사업장의 근로환경 및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기업들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정유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그리고 외국기업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유업계는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특성상 과점 이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가격담합 등 비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경우 사회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로 인해 국내 정유 업계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자 업계차원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 이슈 1. 가격담합 논란

시장이 과점을 이루고 있으면 담합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더 취할 수 있고 정부당국이 이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담합이 쉽게 일어난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격담합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압수수색 및 담합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 그리고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 모두가 정유사들의 담합사건이고, 역대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 3분의 1이 정유사들에게 집중되어있다.

[사례] 정유업체 5개사, 군납유류 입찰 담합

13년간 끌어온 군납유류 입찰 담합 소송 끝에 정부가 정유사들로부터 배상금 1,355억원을 받아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사청의 전신인 조달본부가 2001년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0일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이 국고로 완납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내 정유업체 5개사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물량, 낙찰단가 등을 담합해 국가에 약 8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합산해 1,355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방사청은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 시 정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례] LPG 가격 담합에 철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업체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과징금으로 2,840억이 확정되었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A사와 B사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 협의해 LPG 판매 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정하면 다른 정유업체도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매월 말 통보했으며, 실제로 정유사들도 이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0년 4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이슈 2. 기름유출 사건

정유업체들의 공장은 주로 수출입에 유리한 위치인 해안가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유류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나 유류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운반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파도를 타고 생태계와 주변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유업체들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및 사고관리를 필요로 한다.

[사례] 기름유출 사례

국내의 정유업체인 A사는 유조선이 진입하던 중 부두 시설물과 송유관 잔교 등을 충돌해 약 754㎘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다. 이는 중간 발표 때의 164㎘보다 최대 4.6배 많은 수치로, 유출량이 많아진 것은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해 A사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등으로 유출량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A사의 해무사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과 부두 관계자들의 유출기름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미흡 등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유출량이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바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방제역량을 총동원했다면 기름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서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슈 3.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쇄신

국내 정유사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업체들이 사회공헌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기업의 사업적 책임과 함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포함된다"라며 "또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더욱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체 특성상 소비자들을 직접 대할 창구가 주유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로 문화 분야 또는 공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지역사회로의 공헌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사례] 문화분야 사회적 공헌

A사의 본사에서는 매달 두 번씩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새로 지은 본사사옥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00석의 강당 로비에서는 매월 둘째 주 낮 12시와 넷째 주 저녁 7시에 연극, 뮤지컬, 무용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 주에 열리는 음악회는 '주먹밥 나눔 콘서트'로 정해져 모금을 통해 결식아동들을 돕는다.

[사례] 지역사회 공헌

여수에 기반을 둔 B업체는 여수엑스포에 기업관을 짓기도 했으며 박람회 운영 차량의 유류도 전량 공급하고,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1,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300석 규모의 소극장, 에너지홍보관, 해안산책로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공원를 마련했다. 또한 여수 인근 323개 섬 안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열고 집 고쳐주기, 종합공사, 해안가 청소 등의 지역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C사는 본사가 있는 대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2003년부터 서산지역 쌀을 일정량 구매하는 사업을 벌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자립을 지원하고, 우럭 방류 사업과 삼길포 연안 청소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울산을 터전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D사는 23개 자원봉사팀 1,9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노인문화축제, 청소년 여름캠프, 어린이 골든벨 행사, 장애인과의 산행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10년간 1,020억원을 투자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원인 울산대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 이슈 4. 해외기업 사례

해외기업들은 국내기업보다 앞서 전세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펼쳐왔다. 자신의 회사와 브랜드를 사회 공헌활동에 연관시켜 사회 및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각인하고, 이를 통해 얻는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통한 매출 상승과 각 진출국가내에서의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받았다.

[사례]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석유업체 Chevron의 사회공헌활동

미국의 주요 정유업체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에너지기업인 Chevron사는 1879년 설립되어 현재 전세계 64,500명의 임직원들이 24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업체는 사내에 환경사회보건영향평가(ESHIA, Environmental, Social and Health Impact Assessment)시스템을 통해 이 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통해 분석한다. 한편 이 업체는 베네수엘라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7,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교육과 경제개발 분야에 집중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9년에 걸쳐 1,690명에게 경영에 필요한 프로젝트계획, 마케팅, 재무 등의 기술을 가르쳐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학대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기술과 경영을 가르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인 "Vístete de Sueños"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성과의 도움으로, 2010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전프로젝트의 개발권을 따냈다.

[사례] 사회적 공헌활동의 선도 기업이었던 BP사

영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인 British Petroleum사는 "Beyond Petroleum"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1998년 탄소배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미래를 생각한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로 환영받았다. 이러한 활동으로 전세계의 사회공헌활동 및 친환경기업활동의 선도기업으로 이미지를 쌓았고, 포츈지와 AccountAbility에 의해 세계 제1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비용절감 문제와 2005년 15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다친 텍사스시티 공장 폭발, 그리고 2006년 알래스카 석유파이프 유출 사건 등 수많은 참사로 인해 BP의 명성은 훼손됐고 '그린 워셔'(가짜 환경 리더)로 찍혔다. 특히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 이후로 가맹 주유소들이 BP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것까지 고려하는 등 친환경기업으로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량 증발했다.

◎ 결어

국내 정유업계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나, 현재 국내 정유업계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회적 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점차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실제 기업의 활동이 가격담합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환경오염사건으로 귀결된다면 BP의 경우처럼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기업의 활동에서부터 윤리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65382
http://www.ajunews.com/view/2009042900016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6/2014020601013.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8202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83850
http://www.chevron.com/countries/venezuela/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802000470&md=20100802110010_B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19191

윤리경영 스터디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Q&A

지속가능경영은 1992년 UN 리우환경회의에서 'Agenda 21'로 채택되면서 그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7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창설되어 기업의 표준화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발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3년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4개에서 2013년 118개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서(Social Responsibility Report)', '기업시민 보고서(Citizenship Report)',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담겨지는 내용은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공개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가장 최근의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RI-G4)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를 반영하고,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와 주주, 이해관계자 및 고객, NGO 등 일반 공공에게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비재무적인 보고서"라고 정의한다.

상장 기업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정기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정보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 실적과 단기적 재무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성장성, 즉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일례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환경을 오염시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그 성과를 주주·임직원·소비자·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 및 영향, 지배구조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에게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Principles, ISO26000 같은 국제기준들은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의 범위를 넓히거나 더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함 내용 예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현재 위치 및 정책- 지속가능경영 어젠다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혁신 사항- 에너지, 화석연료, 물, 목재 등 비재무적 자원 소비량- 쓰레기 및 오염물질, 온실가스, 하수 배출량-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지역사회 및 NGO 활동 참여-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신제품 수요, 지속가능경영 어젠다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기회- 인권사항에 대한 기업의 노력-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사회적 이슈 및 반부패정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가이드라인 소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기초 평가 자료가 되고 기업의 내부 지침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는 등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고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비재무적 성과 보고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RI 가이드라인, BEST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ISO 26000 및 UNGC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는 아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지침으로 활용되는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에 있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Korea Sustainability Factbook 2014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들 중 96%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GRI-G3, G3.1, G4를 활용하였으며, 77%의 기업이 ISO 26000, 61.9% 기업이 UNGC, 그리고 12.4%가 BEST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

명칭	개요	기관명
UNGC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영역 등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등 기업의 공적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원칙	UN
PRI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하여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시 CSR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GRI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기업의 사업성과와 구체적 수치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재토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UNEP
ISO 26000	각국간 서로 다른 CSR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기업,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	ISO
The International <IR> Framework	기업의 재무, 지배구조, 보상 및 지속가능성, 경영자 설명(MC: Management Commentary)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IIRC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의 국제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다국적 기업이 현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의 가이드라인	OECD
BEST	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KOSBI-CSR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경영공시체제를 강조	중소기업연구원

◎ 정부 차원의 노력

정부는 기업이 착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고, 경쟁력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 및 규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호주, 중국, 덴마크, 프랑스, 인도,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정부부처들은 정책이니셔티브 및 규제를 제도화 했으며, 유럽위원회는 종업원 규모 500명 이상의 회사들에게 사회적 책임 관련 경영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성과정보를 공시하는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 중소기업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동기는 대기업들과는 다를 수 있다. 대기업은 공급자인 중소기업에 일정 종류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추세이고, 대기업이 작성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공급업체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지표들이 있다. 실제로 GR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재료소비 및 작업장 내 생산성 관찰을 통해 기업의 활동과정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회사경영시스템과 내부기업 활동 과정의 개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즉 거래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좋은 명성, 신뢰와 존경을 쌓을 수 있으며, 투자자 및 은행들이 지속가능경영 측면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른 중소기업들에 비해 투자매력이 더 커질 수 있다.

◎ 결어

이상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주요한 공시 수단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외부에 공시하는 대표적인 채널로 향후 그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도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Korea Sustainability Factbook 2014, 산업정책연구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04153.html
해외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지원 사업, marcspon, 2010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UNEP
Ready to Report? Introducing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SMEs, GRI, 2014

행사 이모저모

◎ 행사 이모저모

제 12 회 윤경 SM 포럼 CEO 서약식 개최

윤경SM포럼(공동대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종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총괄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윤경CEO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한 기업,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올해 윤리경영의 테마로 '안전경영'을 내세워 기업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기업의 안전경영담당 임원은 서약에 동참하여 윤경SM포럼 선언문 '우리의 다짐 2.0'을 통해 윤리 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윤경SM포럼 산하 '안전경영자문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 지난 2003년 3월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갈 다자간 포럼인 윤경SM포럼을 발족한 이래로 CEO서약식을 개최, 지난 11회 동안 800여명의 CEO가 서약에 동참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8/0200000000AKR20150318108900848.HTML?input=1195m

◎ 국내외 행사

UNGC 국제컨퍼런스 (Leaders Summit 2015)

UNGC(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하며,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주최 : UNGC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5월 19일(화) 09:00 ~ 18:00
- 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주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참여
- 주요 참석인사 :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내외 주요기업 CEO 등

※ 오후 일정(14:00~)으로 반부패,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의 4개 분과세션 운영
※ 참가 문의 : 02-749-2149, 044-200-7167

제 10 기 창조혁신 CEO 아카데미

경영전략, 리더십, 인문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
- 일시 : 2015년 3월 26일(화) ~ 11월 10일(화)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지하2층, 남대문로 소재)

출처: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vent/appl/GuHubDetail.asp

KBCSD Sustainable Korea 2030 산업계 시상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Sustainable Korea 2030 산업계 시상식' 개최

- 주최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일시 : 2015년 3월 27일(금) 16:00 ~ 19:30
- 장소 :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2015 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전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Corporate citizenship에 대한 비전, 우수 사례 공유

- 주최 :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년 4월 19일(일)~21일(화)
- 장소 : 미국, 텍사스

출처:
http://ccc.bc.edu/index.cfm?pageId=2903

2015 Shared Value Leadership Summit

공유가치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에 최적화된 공유가치전략 수립 방법에 대한 강의와 참여자들의 경험 공유

- 주최 : Shared Value Initiative
- 일시 : 2015년 5월 12일(월)~13일(수)
- 장소 : 미국, 뉴욕

출처: http://sharedvalue.org/events/2015-shared-value-leadership-summit

동향 & 소식

국내 윤리경영 동향

「부정청탁금지법」 공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기대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7일 공포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1회 100만원(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후 올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그 동안의 적폐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801

기업 호감도, 10년만에 최저..."윤리경영 미흡"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2월 26일 발표),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하반기(4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등 일부 기업 오너의 갑(甲)의 횡포가 윤리적인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호감 지수가 2004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17.6%), '기업간 상생협력 부족'(15.5%), '고용창출 노력 부족'(9.2%) 등도 그 뒤를 이었다.

*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를 합산해 선정한다.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으며, 0점에 가까우면 매우 낮은 것이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1518.html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기업 19곳 늘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 수는 지난해 132개에서 올해 151개로 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된 132개사에 19개사를 추가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중견기업(1차 협력사 포함) 비율은 2012년 0%에서 2013년 19%, 2014년 30%, 올해 36%로 늘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연간 2회 받게 된다. 1차 협력사 등 신규로 포함된 중견기업은 평가 준비기간을 받아 올해는 시범 체감도 조사만 하고, 1년간 등급 공표도 유예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동반위는 금융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2401731

불성실 공시 법인, 대형주로 확산

과거 코스닥 상장사나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들의 전유물이었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최근 들어 대형주로 확산되는

추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12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개사)보다 2개사가 줄었지만 대형주들의 비율은 오히려 높았다. 이 기간 대형주의 불성실 공시 법인 비율은 지난해 36%(전체 14사 중 5개사)에서 올해 50%(전체 12사 중 6개사)로 급증했다. 이 중에는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도 포함돼 있다. A사는 지난 1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고 공시 위반 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납부했다. 이유는 종속회사인 B사의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C사는 2013년 3·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정공시를 불이행하여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받았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3121718320760

해외 윤리경영 동향

UNGC, 지난 해 회원기관 657개사 퇴출
UNGC(UN Global Compact)는 2014년 연간 회원기관의 동향을 담은 '2014 Key Facts'를 통하여 회원기관의 퇴출 및 신규 가입 현황을 발표하였다. UNGC회원기관은 매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하 COP보고서)를 통하여 자사의 경영전략 및 상시업무 상 UNGC의 10대원칙 준수사항을 UNGC에 보고해야 하고, 연속 2회 이상 COP보고서의 제출이 누락될 경우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UNGC의 총 회원기관 수는 2014년 말 기준 8,378개(2005년부터 10년간 평균 회원기관 증가율은 약 17.5%) 기관으로 그 중 5,404개 기관이 COP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미제출 회원기관 2,974개 중 657개 기관이 2년 연속 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UNGC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 UNGC는 2014 Key Facts를 통해 UNGC는 2013년 10월 도입한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정책을 통하여 오는 2015년 10월 31일부터 비영리기관 역시 연속 2회 이상 참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바 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英 의원들 '부도덕 로비' 파문

영국 고위 정치인들이 특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의 로비활동을 돕고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보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채널4 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합작 탐사보도를 통해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고발했다. 공동취재팀은 가상의 중국 기업을 가장해 의원 12명에게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규제 완화 등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접촉했다. 6명이 협상에 응했고 특히 두 전직 외무장관이 큰 관심을 보였다. 보도가 나간 직후 한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직위정지 처분을 받았다. 앨리스테어 그레이엄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은 "시민의 종으로 봉사해야 할 의원들이 특권을 남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일을 대중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2/23/20150223004621.html?OutUrl=naver

오바마,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명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정도 줄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는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와는 별도로 연방기관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한다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었다. 당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중국은 오는 2030년을 전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했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34&aid=0002779582

감성 메시지

“알리다, 소통하다”

오늘날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경영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기업 명성에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은 웹페이지, 각종 보고서, 미디어 보도, 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의 과거형은 관리이다. 경영의 현재형은 소통(커뮤니케이션)이다. 경영의 미래형 역시 소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소통(疏通)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기 위함이며, 서로 오해가 없고자 함은 아닐까요?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싱가포르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는 8.4점을 기록, 세계 7위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제일 깨끗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를 억제하려는 싱가포르의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패척결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예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POCA)은 싱가포르의 주요한 반부패 관련법이다. 이 법은 193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법적인 효용성이 낮았다. 1960년 개정되면서 부패조사청(CPIB)에 체포, 압수수색, 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다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였고, 1989년에는 부정축재몰수법을 제정하여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범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압류·동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뇌물 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토록 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올렸다.

◎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CPIB, Cu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싱가포르는 1950년대 초반까지도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일본의 점령시기를 거치면서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1952년 전에는 모든 부패 사건이 반부패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경찰 내의 부서에서 다루어졌는데, 1951년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 명이 연루된 아편 강취 스캔들을 계기로 반부패국을 대신할 독립기관인 CPIB가 1952년 설립되었다. 하지만 설립초기에는 1937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불완전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개인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데 법적근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1959년 리콴유 총리의 인민행동당이 집권하고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부패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점차 CPIB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신뢰하게 되었고 현재의 CPIB가 될 수 있었다.

<CPIB의 전체적 접근법>
- 어떠한 사건도 수사하지 않을 만큼 작지 않다
- 부패사건 관련자의 지위고하를 무시하고 처리

- 뇌물 공여자와 받은 사람 둘다 동등하게 처리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모두 조사
- 다른 정부기관의 부패관련 사건을 인수하고 필요하면 그 기관의 고유 조사업무도 인수

CPIB의 반부패전략은 전체적 접근방법(Total approach)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인 요소측면(People-factor)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정부패행위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패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잠재적인 범법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패사례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하는데, 정부나 대중매체는 범법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런 조치는 범법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또한 뇌물 적발 가능성을 높여서 뇌물이 "High risk low return" 되도록 하여 국가 내 부정부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례: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예방제도>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 그리고 집행과는 별도로 공무원 부패예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모든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부패예방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이다.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고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공개를 의무화시켰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축적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공직자들은 선물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선물과 뇌물 사이의 고민, 개념의 혼란 등을 원천봉쇄했다.

◎ 싱가포르 기업들의 기업윤리

싱가포르는 1990년대 Baring Bank를 파산시킨 Nick Leeson의 케이스 등이 내부 거래 및 각종 기업관련 사기 스캔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2011년 KPMG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20%의 싱가포르 기업이 내부 스캔들에 휘말렸다. 또한 글로벌 컨설턴트 업체인 Ernst&Young(E&Y)의 "더 윤리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설문조사(2013)" 결과, 3분의 2에 가까운 싱가포르의 기업경영자들이 반부패와 관련한 기업의 대처가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정기적인 윤리교육의 부재 및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18%의 응답자만이 자신의 경영진이 기업내 반부패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응답하여 윤리경영에 대하여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싱가포르의 Navi Marine Services Pte Ltd 사>

싱가포르는 세계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드나드는데, 이러한 배에 기름을 공급하는 Navi Marine Services Pte Ltd사의 담당자는 기름의 품질과 양을 조작하는 대가로 42명의 기름조사관에게 109,804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CPIB에 의해 조사받고 기소되었다. 해당 담당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410,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이 외에도 CPIB의 조사를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7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추가로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정부 주도의 싱가포르 CSR 정책 (Agenda-Setter & Agenda-Manager)

싱가포르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무역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CSR에 대한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CSR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주도하여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CSR과 그 개발에 대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목표 및 발전방향을 이끌다가 정부는 점차 빠지고 노동자, 경제단체 등 CSR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이끌어나가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 Jeremy Moon과 Wendy Chappl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아시아 7개국들 중에 소득수준과 발전수준이 제일 앞서고 있음에도 CSR의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 환경보호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이미 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따로 CSR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CSR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싱가포르의 주요 세 개의 이해관계자단체인 정부, 노동자단체, 무역조합에서는 Singapore Compact(SC)을 설립했다. 현재 SC는 410개의 기업,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SC는 Singapore Compact CSR Awards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 및 단체들의 CSR활동을 촉진하고, CSR 청소년 포럼, 국제 Singapore Compact CSR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싱가포르 내의 CSR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싱가포르의 City Developments Limited>

싱가포르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City Developments Limited(CDL)은 아시아의 CSR을 선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싱가포르 최초로 ISO 26000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도입하였고 2014년 지속가능경영기업 전세계 순위 39위(Corporate Knights'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를 차지했다. 또한 싱가포르 업체 최초로 DJSI, FTSE4Good Index, Global 100에 모두 이름을 올렸고,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3천만 달러 절감, 온실가스 배출 18% 감축, 건축폐기물 4,544톤 감축, 전기사용을 61,398 메가와트까지 줄였다. CDL은 Singapore Compact CSR Awards에서 꾸준히 상을 받는 등 싱가포르의 CSR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My Tree House, CDL Green Gallery 등 친환경 빌딩을 통한 부동산 개발을 이끌고 있다.

◎ 결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과감한 입법,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에 대해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 하고 있다. 비록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면적과 인구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싱가포르가 부정부패를 다루는 방식과 제도는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8
http://centres.smu.edu.sg/lien/research/state-of-play/
http://www.cnbc.com/id/101079373
https://www.cpib.gov.sg/cases-interest/private-sector-cases/bunker-cases
EFFECTIVE INVESTIGATION OF AND PUNISHMENT FOR CORRUPTION, Soh Kee Hean, 2009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구들이 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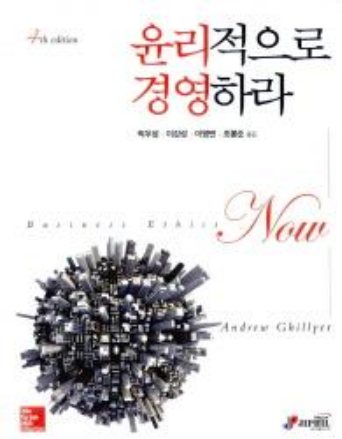
A. 기업들은 한 해 동안 한 기업이 창출한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고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제출 된 공적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정책, 성과, 대외공시 등을 평가하여 매년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ESG(Envior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그리고 환경경영을 평가하며 그 결과물은 ESG 기초자료 및 관련정책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series (DJSI), FTSE4GOOD Series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기업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가지수를 구성·발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 NGO 등에서 존경받는 기업의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달의 책

윤리적으로 경영하라



저자: 박우성, 이강성 외 2인
출판: 지필미디어
출판일: 2015. 2. 10
정가: 18,000

『윤리적으로 경영하라』는 윤리경영에 대해 다룬 책이다. 사례와 토론이 가능한 본문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국내 경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원서에 포함되어 있던 미국의 윤리관련 법과 행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했다. 기업윤리 정의, 실무, 기업윤리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다보스 리포트(2015) -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시대, 성장 해법을 찾다

저자: 정욱, 임성현
출판: 매경출판
출판일: 2015. 3. 25
정가: 16,000

이 책은 글로벌 석학과 경영자, 정치인들이 다보스포럼에서 서로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다보스포럼 사무국은 2015년 포럼의 대주제를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으로 내걸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동북아 갈등, 여기에 IS의 부상으로 국가 간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다. 유가 폭락과 함께 러시아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중국은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고성장 전략을 포기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유럽중앙은행의 파격적인 양적완화까지.... 불안한 경제 상황은 가뜩이나 높아졌던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세계는 새로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즐거운 윤리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종만)